

#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

말씀 시리즈: 마가복음 강해 12

본문: 마가복음 2:13-17

## | 서론

마가복음 2장부터 3장 6절까지는 예수님과 종교지도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중요한 논쟁들을 기록하고 있다. 첫 번째 논쟁, 중풍병자 사건에서는 예수의 사죄 권위가 문제되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 논쟁으로, **예수께서 누구와 함께하셨는지가 주목된다.** 예수께서는 세리 레위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다. 이는 당시 종교적 기준을 뒤흔드는 사건이었다.

### 갈릴리 논쟁 5가지 (마가복음 2:1-3:6)

<b>1. 중풍병자 죄 사함 논쟁(막 2:1-12)</b>
예수께서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언하심. 서기관들은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사하느냐”고 반발함.
<b>2. 세리와 죄인들과의 식사 논쟁 (막 2:13-17)</b>
예수께서 레위(세리)를 부르시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심. 바리새인들은 왜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고 문제 삼음.
<b>3. 금식 논쟁 (막 2:18-22)</b>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예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음. 예수께서는 신랑 비유와 새 포도주 비유로 응답하심.
<b>4. 안식일 밀 이삭 논쟁 (막 2:23-28)</b>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자 문제 제기됨. 예수께서는 다윗의 사례를 들며 안식일의 본뜻을 밝히심.
<b>5. 안식일 병 고침 논쟁 (막 3:1-6)</b>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심. 바리새인들은 이를 고발하려 함.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에게 메시아라면 죄인들과 거리를 두고, 거룩을 지키려면 경계를 분명히 해야 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적 경계를 허무시고, 죄인들 가운데로 나아가셨다.** 이 논쟁은 단순히 “식사 예절”의 문제가 아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 누가 참으로 주님 가까이에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를 묻는 질문이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께서 누구를 부르시는지, 우리는 그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우리가 잔치 안에 앉아 있는지, 밖에서 머물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한다.

## | 본론: 본문 주해1

Mark 2:13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매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Mark 2:14 또 지나가시다가 알패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Mark 2:15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 1. 세리 레위

13절은 본문의 배경을 제시한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로 나가셨음**’을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갈릴리 호수를 의미한다.<sup>1</sup> 갈릴리 호수는 당시 갈릴리 주민들의 생업과 생활의 중심지였다. 우리 주님께서는 일종의 **순회 교사**로서 사람들의 삶의 현장 가까이 가서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셨다.

14절은 주님의 시선이 한 인물에게 향했음을 기록한다. 그는 **레위**이며, 그는 알패오의 아들이자 **세관**에 앉아 있었다. 성경에서 알패오의 아들 가운데 제자로 등장하는 다른 인물은 야고보이다. 그러하기에 일부 학자들은 이 레위를 야고보의 형제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형제들을 나란히 기록하는 마가의 기록 방식**을 고려할 때, 레위와 야고보는 모두 알패오의 아들이지만 형제는 아닐 가능성이 크다. 우연히 아버지의 이름이 같았던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또한 마가복음에서는 그 이름을 레위라 말하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마태로 기록한다. 이는 두 가지 가능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나는 당대 관습에 따라 **두 개의 이름**을 가진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그가 **레위 지파 출신**이었기에 “레위”로 불렸을 가능성이다. 만약 후자가 맞다면, 그의 삶은 제의적 소명을 가졌던 조상들의 모습에서 벗어나 세속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아이러니를 보여주는 장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카라바지오, 「성 마태의 부르심」  
(The Calling of Saint Matthew, 1599-1600)

<sup>1</sup> 신약 성경에서 갈릴리 호수를 흔히 “갈릴리 바다(Sea of Galilee)”라 번역하는 이유는 역사적·언어적·문화적 맥락에 기인한다. 신약은 원래 헬라어로 기록되었으며, 여기서 사용된 θάλασσα(탈라싸)는 ‘바다’뿐 아니라 ‘큰 물’이나 ‘호수’를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를 지녔다. 당시 갈릴리 호수의 규모(약 21km × 13km)는 주변 사람들에게 넓고 깊은 물, 즉 작은 바다처럼 인식되었으며, 배를 이용한 어업과 풍랑 경험 역시 이러한 표현을 자연스럽게 했다. 또한 헬라어 문화권과 유대 지역에서 일상적으로 큰 호수도 “바다”라 칭하는 언어 습관이 존재하였다. 신학적·문화적 측면에서도,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설교하시거나 물 위를 걷는 장면은 광활하고 신비로운 배경을 강조하기 위해 ‘바다’라는 표현이 적합했다. 따라서 원문과 당시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바다와 호수의 구분이 지금처럼 엄격하지 않았다고 이해해야 한다.

## 2. 죄인 세리

당대 사람들은 왜 세리를 죄인으로 취급하였는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도덕적인 측면**이다. 세리들은 로마의 앞잡이로서 로마의 권세를 등에 업고 백성들에게 많은 세금을 거두어 자신들의 몫을 챙기던 자들이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로마를 위해 일하는 것 자체도 거슬리는 일이었는데, 동족의 어려움을 외면한 채 **자신의 이익**을 채우는 모습은 더욱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 사회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자들로 여겨졌다.

둘째, **종교적인 측면**이다. 세리들은 로마 화폐를 사용하였다.<sup>2</sup> 그 화폐에는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는데, 이는 유대인들에게 우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요소였다. 따라서 그 화폐를 다루는 일 자체가 간접적으로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행위로 여겨졌다. 이러한 이유로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부정한 자로 간주하였다. 세리가 어떤 집에 들어가면 그 집 전체를 부정하게 여겼고, 그의 가족들 또한 세리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감내해야 했다. 세리에 대한 인식은 이전에 살펴본 나병 환자 못지않은 수준이었다.



## 3. 나를 따르라

14절 하반절에서 주님은 그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다. 이는 앞서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제자로의 부르심이었다.

주님은 평범한 사람을 부르셔도 되었을 것이고, 적어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받지 않는 자를 택하셔도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굳이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부정한 죄인 취급을 받던 자를 제자로 부르셨다. 이는 사회적 시선으로 볼 때 **충분히 논란이 될 만한 선택**이었다. 주님은 사람들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고, 사회적으로 배척받는 인물을 제자로 삼으셨다.

<sup>2</sup> 예수 시대 팔레스타인에서 사용된 로마 화폐에는 황제의 초상과 공식 문구(inscription)가 새겨져 있었다. 대표적으로 데나리온(denarius)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과 함께 “TIBERIVS CAESAR DIVI AVGVSTI F[ILIVS] AVGVSTVS”와 같은 글귀가 새겨져 있었으며, 이는 “티베리우스 카이사르,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아우구스투스”라는 의미이다. 이러한 초상과 문구는 유대인들에게 우상 숭배를 상징하는 요소로 인식되었다.

#### 4. 죄인들과 식사하심

15절은 예수께서 레위의 집에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장면을 기록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식사처럼 보이지만, 당시 식탁 교제는 단순히 끼니를 해결하는 자리가 아니었다. 식탁은 사회적 신분과 관계를 드러내는 상징적 공간이었다. 누구와 함께 식사하느냐는 곧 그 사람을 어떤 존재로 인정하느냐를 보여주는 행위였다.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두 부류로 구분하였다. **‘땅의 사람들’**은 율법에 무지하거나 제대로 지키지 않는 자들이었고, **‘신뢰할 만한 사람들’**은 율법을 알고 지키는 경건한 자들이었다. 식탁 교제는 후자에게만 허용되었으며, 이는 거룩을 지키기 위한 경계선이었다. 그러므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신 예수의 행동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당시 종교적 경계를 허무는 급진적인 선언이었다.

레위는 제자가 된 후 주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잔치를 베푼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순한 환영이 아니라 삶의 방향 전환을 드러내는 공개적 고백이었다. 세관에 앉아 이익을 계산하던 삶에서 일어나, 이제 자신의 집을 열어 예수를 중심에 모시는 삶으로 바뀐 것이다. 그의 집은 더 이상 계산의 공간이 아니라 은혜가 흐르는 공간이 되었다.

15절 중반절에서 한글 성경은 ‘앉아... 앉았으니’라고 번역하지만, 원어 ἀνακεῖμαι(아나케이마이)는 **‘기대어 누워 식사하다’**라는 의미이다. 이는 당시 그리스·로마식 정찬 문화에서 손님들이 비스듬히 누워 식사하던 모습을 가리킨다. 이러한 자세는 **친밀함과 수용, 동등한 관계를 상징한다**. 예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을 멀리 두고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같은 자리에서 몸을 기울이며 함께 교제하셨다. 이는 단순한 접촉을 넘어 그들을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이는 행위였다. 주님의 몸의 자세는 곧 복음의 방향을 보여준다.

이처럼 주님의 친밀함이 향한 첫 대상은 세리와 죄인들이었다.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종교적으로 배제되었던 그들은 예수와 한 식탁에 앉음으로써 **새로운 정체성**을 경험하였다. 식탁 교제는 그들을 단순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받은 존재로 드러내는 사건이었다. 이어지는 17절에서 주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씀은 식탁 교제가 단순한 사교의 자리가 아니라 구원이 실제로 시작되는 자리였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예수의 식탁은 치유와 회복이 시작되는 자리였다.



두 번째 대상은 제자들이었다. ‘제자’라는 단어가 마가복음에서 여기 처음 등장하는데, 이는 제자가 단지 가르침을 듣는 학생이 아니라 주님과 삶을 공유하는 동행자임을 드러낸다. 제자는 주님이 가시는 자리, 심지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자리에도 함께하는 사람이다. 레위의 집에서 이루어진 식탁 교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몸으로 배우게 한 현장이었다. 하나님 나라는 경계 안의 사람들만을 보호하는 체제가 아니라, 경계 밖의 사람들을 초청하여 새 공동체를 이루는 나라임을 그들은 경험으로 배웠다. 제자도는 가르침을 듣는 교실이 아니라, 식탁에서 형성된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서도 성찬 못지않게 **애찬(愛餐)**, 곧 사랑의 식사와 교제가 중요하다. 가난한 자와 부자, 죄인과 의인, 노인과 어린이가 한자리에 모여 친밀함을 나누는 것은 단순한 친교가 아니라 복음의 가시적 표현이다. 교회는 도덕적으로 완성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은혜로 초청받은 사람들이 함께 앉는 자리이다. 주님은 의인들의 모임에만 앉지 않으시고 죄인들의 모임에도 참여하셨다. 이는 죄인들을 제자로 부르시기 위함이며, 우리 또한 연약하고 부족한 이들을 받아들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식탁은 여전히 복음이 구현되는 자리이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앉는가, 누구를 초대하는가, 누구를 받아들이는가는 곧 우리가 어떤 하나님 나라를 믿는가를 드러낸다. 함께 나누는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실재가 드러난다.

§ 주님이 부르실 때, 나는 움켜쥐고 있는 ‘세관의 의자’에서 즉시 일어날 용기가 있는가?

주님은 사람들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다. 나는 남들의 눈치를 보느라 옳은 일을 미루거나 피한 적은 없는가?

나만의 편안한 울타리를 넘어, 오늘 내가 먼저 ‘비스듬히 누워’ 친밀해져야 할 소외된 이웃은 누구인가?

---

## | 본론: 본문 주해2

Mark 2:16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Mark 2:17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 1.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의 반대

16절은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시는 주님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반감을 기록한다. 본문은 그들을 단순히 “바리새인”이라 하지 않고,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힌다. 이는 바리새파에 속한 율법학자들을 가리

킨다. 당시 서기관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자에 해당하는 자들이었다. 사두개파에도 서기관이 있었으나, 율법 연구와 해석을 중심 사명으로 삼았던 바리새파에 더 많이 속해 있었다. 그들은 백성들을 가르치는 선생들이었고, 정결법과 율법 준수에 누구보다 엄격한 자들이었다. 중요한 점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를 비판하는 자가 단순한 종교인이 아니라, 율법에 철저하다고 자부하던 신학자 집단이었다는 사실이다. 그들의 눈에 예수의 행동은 분명 율법의 정결 기준을 무너뜨리는 행위처럼 보였을 것이다. 적어도 그들이 이해하고 적용하던 정결 규례의 범주 안에서는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들은 신뢰할 만한 사람들과만 식탁 교제를 해야 한다고 여겼다. 식탁 교제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상대를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지녔기 때문이다. 그러한 기준으로 볼 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예수의 행동은 명백한 경계 허물기로 보였을 것이다. 어쩌면 그들은 예수에 대해 어느 정도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을 지도 모른다. 큰 명성을 듣고, 혹시 메시아일지 모른다는 기대 속에 관찰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예수의 행동은 그들의 메시아 상(像)을 완전히 깨뜨렸다. 그들의 기대 속 메시아는 죄인들과 분명히 선을 긋고, 정결을 더욱 엄격히 하며, 의인들의 모범이 되어야 할 존재였다. 그런데 예수는 정반대의 길을 가셨다. 그러므로 그들의 기준으로는 비판하지 않을 수 없었다.

## 2. 잔치 안과 잔치 밖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공간적 대비이다. 바리새파 서기관들은 정결법상 세리의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었다. 세리의 집은 그 자체로 부정한 공간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디에 있었는가? 본문의 맥락상, 그들은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다. 아마도 집 밖에서, 열린 문 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제자들에게 따져 물었을 것이다.



장면을 그려보라. 집 안에서는 예수와 죄인들이 기대어 누워 친밀함을 나누고 있다. 반면 집 밖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서서 비판하고 있다. 안에는 은혜의 잔치가 열려 있고, 밖에는 자기 의(義)의 평가가 서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죄인이라 불린 자들은 잔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었고, 스스로 의인이라 여긴 자들은 잔치 밖에서 주님과 가장 멀어져 있었다. 이 대비는 단순한 공간의 차이가 아니다. 예수와의 관계의 차이이다. 잔치 안에 있다는 것은 단지 물리적 위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여 그분과 함께 앉아 있는 상태를 뜻한다. 반대로 잔치 밖에서 있다는 것은 스스로 의롭다 여기며 주님을 평가하는 자리에 머무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누가 참된 제자인가?** 참된 제자는 자신의 처지와 상관없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분 곁으로 나아오는 자이다. 레위는 세관에 앉아 있던 자리에서 즉시 일어나 주님을 따랐다. 그는 자신의 생업과 계산보다 주님과 의 가까움을 더 귀하게 여겼다. 반면, 자기 의에서 있는 자는 주님을 판단할 수는 있어도, 주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는 없다. 문제는 지식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거리감이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 있는가? 잔치 안에서 주님과 가까이 함께 기대어 있는가, 아니면 잔치 밖 멀리서 그분을 평가하며 서 있는가?

### 3. 주님이 오신 이유

17절에서 예수께서는 격언으로 그들의 비판에 답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느니라.” 이는 당시 통용되던 상식적인 표현이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자신의 행동을 설명하십니다. 의사는 건강한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병든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 그러므로 죄인들과 식사하신 것은 정결을 무너뜨리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신 것이다.

이어지는 선언은 그 사명을 더욱 분명히 한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은 어떤 계층을 배제하신다는 뜻이 아니다. 여기서 ‘의인’은 실제로 의로운 자를 가리킨다기보다,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자를 의미한다. 반대로 ‘죄인’은 자신의 병든 상태를 인정하고 의사이신 예수께 나아오는 자이다. 그렇다면 이 구분은 특정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던져진 질문이 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죄인이다. 차이는 도덕적 등급에 있지 않다.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느냐, 아니면 부인하느냐에 있다. 인정하는 자는 치유를 경험하지만, 스스로 괜찮다고 여기는 자는 치료의 자리에서 멀어진다. 의사는 모든 환자를 위해 존재하지만, 진료를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

오늘 본문에서 죄인들은 잔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앉아 있었다. 그들은 병을 인정했고, 의사 곁에 머물렀다. 반면 스스로 의인이라 여긴 자들은 잔치 밖에서 주님을 평가하고 있었다. 그들은 의사에 대해 말할 수는 있었지만, 의사의 치료를 받는 자리에는 서지 않았다.

결국 문제는 도덕적 우열이 아니다. 문제는 주님과 거리감이다. 자신을 죄인이라 인정하는 자는 주님께 가까이 나아오고,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자는 스스로 그분에게서 멀어진다. 잔치 안과 밖을 가르는 기준은 ‘얼마나 깨끗한가?’가 아니라, ‘누가 주님 곁에 머무는가?’이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주님과 함께 앉아 은혜를 누리는 자리인가, 아니면 멀리 서서 평가하는 자리인가? 주님은 여전히 죄인을 부르신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겸손히 응답하여 그분께 가까이 나아오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참된 제자이다.

§ 나는 신앙의 기준을 지키는 열심 속에서,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내 주변의 ‘사회적으로 배척받는 사람’이나 ‘관심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처럼 다가가려 노력하고 있는가?

지금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잔치 안에 있는가, 밖에 서 있는가?

나는 정말로 나 자신을 병든 자로 인정하고 있는가?

---

## | 결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는지, 그리고 그 부르심이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히 볼 수 있다.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배척받고, 사람들에게 죄인이라 불린 이들을 먼저 찾아가셨다. 그들은 세리였고, 부정하게 여겨진 존재였지만, 주님의 초청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은 단순히 믿음을 말로 고백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레위가 자신의 집에서 잔치를 열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한 것처럼, 참된 제자의 삶은 주님의 초청에 **즉시 반응**하여 삶의 자리에서 행동으로 이어지는 삶이다. 이는 우리의 관계, 일터, 가정, 공동체 속에서 나타나는 구체적 순종을 의미한다.

또한 본문은 잔치 안과 밖을 분명히 보여준다. 잔치 안은 은혜와 회복, 공동체와 친밀함이 이루어지는 자리이며, 잔치 밖은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며 주님을 평가만 하는 자리이다. 우리가 어느 쪽에 서 있는가가 바로 신앙의 현재 상태를 드러낸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잔치 안으로 초청하시며, 우리가 그분의 곁으로 나아올 때 비로소 참된 기쁨과 치유를 경험하게 된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

- 나는 주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 나는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앉아 있는가, 아니면 잔치 밖에서 머무르며 평가만 하고 있는가?

주님은 여전히 죄인을 부르신다. 이 부르심은 단순히 도덕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의사결정으로의 초대이다. 우리가 스스로의 병든 상태를 정직하게 인정하며 그분께 나아갈 때, 비로소 은혜의 잔치는 시작된다. 잔치 밖에서 자기 의(義)의 성벽을 쌓으며 주님을 평가하는 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식탁에 비스듬히 누워 그분의 치유와 친밀함을 누리는 제자가 될 것인가. 오늘 우리의 자리, 주님의 음성에 즉시 반응하는 우리의 선택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참된 제자의 삶을 결정한다.

## | Quiz

1. 레위는 누구였으며, 그를 부르신 예수님의 선택이 당시 사람들에게 논란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
2. “나를 따르라”라는 주님의 부르심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3.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신 행위가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왜 문제였는가?
4. 15절에서 사용된 원어 ἀνακεῖμαι(아나케이마이)의 의미는 무엇이며, 식탁 문화에서 어떤 상징을 담고 있는가?
5. 17절에서 예수님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라고 말씀하신 의미는?